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i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인텔 급등 효과에도, M7 차익실현, 연준 매파 발언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8일(화) 미국 증시는 TSMC(-0.6%)의 인수 기대감으로 급등한 인텔(+16.1%) 등 반도체주 강세에도,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연준위원들의 발언, 러-우 종전 협상 과정, 메타(-2.8%) 등 M7 차익실현 물량 등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다우 +0.02%, S&P500 +0.24%, 나스닥 +0.07%)

전일 S&P500(YTD +4.2%)이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연초 이후 나스닥(YTD +3.8%) 포함 미국보다 코스피(+9.5%), 코스닥(+14.1%), 홍콩 항셱(+14.5%), 독일 닥스(+14.8%) 등 비 미국 국가들이 성과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 이는 그동안 후자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주가 반응을 유발했던 악재성 변수 및 불확실성(ex: 전면적인 관세 전쟁 등)에 내성이 생겼다는 점이 긍정적인 주가 되돌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

18일 발표된 BofA의 2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볼 수 있음(조사기간 2월 7~13일). 해당 서베이에서는 올해 악세장이 될 수 있는 축매로 “글로벌 무역분쟁(응답률 42%)”이 1순위에 꼽혔으며, 그 뒤를 이어 “무분별한 시장금리 상승(32%)”, “연준 금리인상(22%)” 등이 지목된 상태.

이 관점에서 전일 장 마감 후 트럼프가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가 25%일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이들 업종 포함 관세 부과 시점이 2월이 아닌 3~4월로 지연되면서 국가 간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은 글로벌 무역분쟁 발발 확률을 낮춰주는 요인. 같은 맥락에서 관세 발 인플레이션 리스크 제한 및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등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시장금리 재급등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도 마찬가지.

한편, 강세장의 축매로 “중국 경기 성장(응답률 35%)”, “AI 생산성 혁명(19%)”, “연준 금리인하(14%)”, “러-우 평화 협정(12%)”, “미국 감세(11%)” 순으로 집계됐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 우선 강세 축매 중 하나인 “러-우 평화협정”은 우크라이나 및 유럽을 배제한 러시아와 미국의 주도로 협정이 진행되고 있기에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트럼프의 감세 정책”도 구체화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1) “이구환신으로 인한 중국의 소비경기 회복 기대감”, 2) “딥시크가 촉발한 AI 도입 가속화 및 대중화 가능성”, 3) “연준의 연내 1~2회 인하 전망” 등이 유효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 여기에 미국 증시의 2년간 연속 20%대 랠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맞물리면서, 비 미국 국가들의 투자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연초 이후 코스피 등 비 미국 국가가 평균적으로 10%대 내외 상승이라는 급등 랠리를 전개한 만큼, 단기 속도 부담 및 피로감을 온전히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에 더해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운용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평균 3.5%로 15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는 점까지 고려 시, 한국 등 주요국 증시는 숨고르기성 횡보 장세가 간헐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을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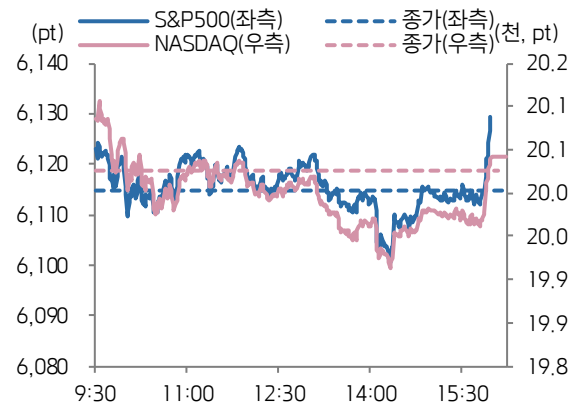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계속)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요국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단기 급등 업종 차익실현 + 소외 업종 매수”라는 순환매 플레이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국내 증시에서도 주중 남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전제로 대응 전략을 미세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K-칩스법 통과 소식, 러-우 종전 기대감 등으로 반도체 및 방산주 동반 강세에 힘입어 전약후강의 장세로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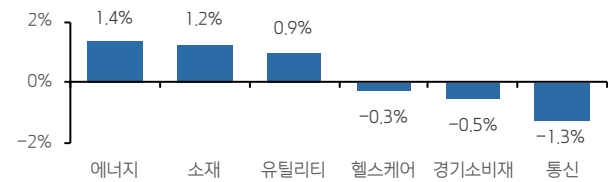
금일에는 인텔 효과, 낸드 가격 3분기 반등 기대감 등에 따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1.7%)에도, 트럼프의 관세 발언, 천연가스 급등 및 연준 위원 발언 등에 따른 미 금리 상승이 최근 증시 랠리에 대한 차익실현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장중 지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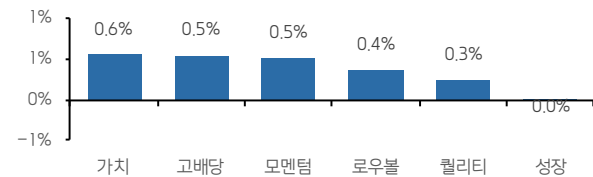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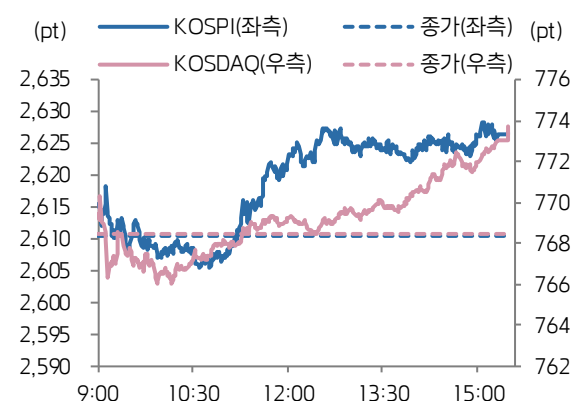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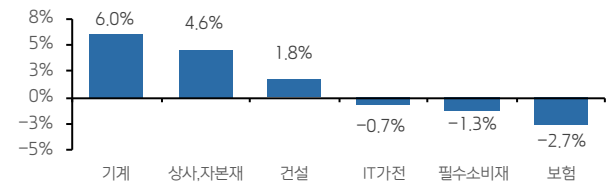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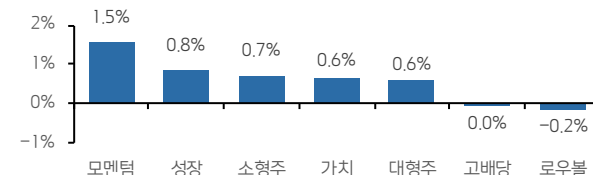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44.47	-0.05%	-2.27%	GM	48.13	-0.5%	-9.65%
마이크로소프트	409.64	+0.3%	-2.81%	일라이릴리	857.20	+1.53%	+11.23%
알파벳	183.77	-0.79%	-2.92%	월마트	103.78	-0.25%	+14.86%
메타	716.37	-2.76%	+22.35%	JP모건	279.95	+1.21%	+17.39%
아마존	226.65	-0.89%	+3.31%	엑손모빌	110.14	+1.76%	+3.3%
테슬라	354.11	-0.49%	-12.31%	세브론	156.16	+0.53%	+9.01%
엔비디아	139.40	+0.4%	+3.81%	제너럴일렉트릭	103.78	-0.2%	+14.9%
브로드컴	228.53	-1.94%	-1.43%	캐터필러	354.00	+0.19%	-2.06%
AMD	114.28	+1.04%	-5.39%	보잉	184.97	+0.3%	+4.5%
마이크론	106.79	+7.31%	+26.89%	넥스트에라	68.50	+0.6%	-4.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26.81	+0.63%	+9.47%	USD/KRW	1,439.50	-0.17%	-2.23%
코스피200	347.84	+0.79%	+9.45%	달러 지수	107.04	+0.44%	-1.33%
코스닥	773.65	+0.67%	+14.08%	EUR/USD	1.04	-0.36%	+0.89%
코스닥150	1,307.98	+0.36%	+15.77%	USD/CNH	7.28	+0.13%	-0.84%
S&P500	6,129.58	+0.24%	+4.22%	USD/JPY	152.06	+0.36%	-3.27%
NASDAQ	20,041.26	+0.07%	+3.78%	채권시장			
다우	44,556.34	+0.02%	+4.73%	가격	DTD(bp)	YTD(bp)	
VIX	15.35	-0.13%	-11.53%	국고채 3년	2.642	+2bp	+4.7bp
러셀2000	2,290.35	+0.45%	+2.7%	국고채 10년	2.880	+1.3bp	+0.9bp
필라. 반도체	5,247.86	+1.68%	+5.38%	미국 국채 2년	4.306	+4.7bp	+6.4bp
다우 운송	16,804.44	+1.19%	+5.72%	미국 국채 10년	4.550	+7.4bp	-1.9bp
상해종합	3,324.49	-0.93%	-0.81%	미국 국채 30년	4.766	+6.9bp	-1.6bp
항셍 H	8,475.40	+1.82%	+16.26%	독일 국채 10년	2.493	+0.4bp	+12.6bp
인도 SENSEX	75,967.39	-0.04%	-2.78%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533.84	+0.25%	+13.03%	WTI	71.85	+1.57%	+0.84%
MSCI 전세계 지수	885.32	+0.12%	+5.23%	브렌트유	75.84	+0.82%	+1.61%
MSCI DM 지수	3,902.14	+0.08%	+5.24%	금	2,949.00	+1.67%	+10.62%
MSCI EM 지수	1,130.61	+0.48%	+5.13%	은	33.37	+1.58%	+14.13%
MSCI 한국 ETF	57.44	+1.34%	+12.87%	구리	459.10	-1.58%	+14.02%
디지털화폐				BDI	806.00	+1.77%	-19.16%
비트코인	95,008.45	-1.46%	+1.38%	옥수수	515.75	+1.38%	+10.74%
이더리움	2,651.08	-4.53%	-20.78%	밀	617.75	+0.69%	+9.82%
				대두	1,055.50	+0.26%	+3.25%
				커피	405.25	-0.53%	+28.7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1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